

Geopolitical Monitor

중국의 보복 조치 속 압박을 이어가는 미국

미국, 최대 25% 관세를 부과할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목록 발표(WSJ, 19.5.13)

- 트럼프 대통령은 6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힘
- 또한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 하지 않았다고 발언
- 미국 무역 대표부(USTR)는 최대 25%의 관세를 부과할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. 총 3,805개 품목으로 휴대폰, 노트북, 리튬-이온 배터리 등 첨단 제품을 포함되었지만 의약품, 희귀금속은 제외됨
- 이와 관련해서 6/10일까지 공청회 출석 요구서 및 주요 내용 요약 제출. 6/17일 공청회 개최, 6/24일까지 사후 평가 및 최종 이의 제기하기로 예정됨

중국, 6/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(WSJ, 19.5.13)

- 중국은 6/1일부터 땅콩,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비롯하여 배터리 등 600억 달러 규모의 5,140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%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
- 이는 미국이 지난 10일부터 2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%에서 25%로 인상에 따른 보복 조치임
-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 지난 몇 년간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힘
- 또한 관세를 적용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떠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
- 한편, 중국의 보복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국 무역 대표부는 최대 25% 관세를 부과할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

사우디아라비아, 유조선 2척 공격받아 (CNBC, 19.5.13)

- 사우디아라비아는 12일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 UAE 동부 영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달
- 이는 이란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한 데 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나선 뒤 발생한 사건
-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공격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고, 피해를 입은 유조선 중 한 척은 사우디 라스 타누라항에 원유를 실으러 가던 배로 미국이 최종 목적지였다고 성명
- 또한 그는 국제사회는 해양항해와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, 국제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
-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해양 운송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변 국가들에 이번 사건의 음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달
- 미국은 이번 일이 매우 끔찍하고 우려되는 사건이라고 평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